

한나라 親李-親朴 공개 대치

親朴계 “물같이 밟언 사무총장 사퇴” 포문 공천 갈등 격화일로…밀실공천 의혹 제기도

4월 총선 공천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갈등이 7일 친이(親이)-친박(親朴)계 간 공개적 정면 대치로 이어지며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공천 시기 갈등이 인위적 ‘물같이’로 대치로 확산한 데 이어 이날에는 ‘40% 물같이’ 밟언과 관련,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퇴론까지 나왔다. 이날 박 전 대표 측의 공격의 선봉으로는 최측근인 김무성 최고위원이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주변에 당선인 축군 인사라는 모인 사들이 공천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 정보를 들려오고 있다”며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구태정치의 악습인 1인 지배 정당정치의 부활이고 민주정당이 다시 사당(私黨)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이명박계의

‘밀실공천’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돌려 “공정한 당무를 집행해야 할 사무총장이 초월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밟언을 해 당 분열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총장은 지난 대선 때 선대본부장으로 당에 큰 공헌한 분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의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김무성, 김학원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난 유정복 의원 등 친박 의원 5~6명은 전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나 공천 문제와 관련된 대책을 숙의한 뒤 이처럼 공개적인 문제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계의 공격이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방호 사무총장은 “논쟁을 하려

는 게 아니라 경위만 간단하게 설명하겠다”며 자신의 물같이 밟언 보도가 오보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장은 지난 5일자 모신문 인터뷰 내용과 관련, “내가 과거 공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적 이야기같이 15대는 몇% 물같이했고, 16대는 또 30%대가 됐고, 17대는 36% 정도가 됐다고 했다”며 “그러나 상대 기자가 ‘한 40% 하면 되겠네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하지마라. 사무총장으로서 치수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표현은 쓰지 말라’고 재차 요구했다”며 “자기가 말을 꺼낸 것을 기사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재석 대표는 이날 마무리 밟언을 통해 “경선 때 누구를 밀었는지 아무 관계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방침”이라면서도 “양쪽 측근들이 나와서 계속 공방하는데,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데도 너무 의심을 하는 것도 정치공세라 생각한다”고 박근혜 계의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6일 뉴햄프셔주 액서터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돌풍’ 또… 지지율 여론조사 힐러리 또 따돌려

美대선 뉴햄프셔 8일 예비선거

지난 3일 아이오와 주(州) 코카스(당원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전에서 초반 기세를 올리니 버락 오바마(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8일 (현지시각) 열리는 뉴햄프셔 주 프리미어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유력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 (뉴욕) 상원의원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USA 투데이와 갤럽이 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의원은 41%의 지지를 얻어, 28%의 지지를 확보해 그친 클린턴 의원은 1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으며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에게는 22%포인트나 앞섰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또 CNN과 ABC방송의 뉴햄프셔 회원사 WMUR이 주말 동안 공동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바마 후보와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9%, 29%로 양자 사이의 지지를 격차가 역시 두 자리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NN-WMUR이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33% 동률이었어, 28%의 지지를 확보해 그친 클린턴 의원은 1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으며 존

매클래치-MSNBC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 오바마 후보는 뉴햄프셔 중 유권자 사이에서 33%의 지지를 얻어 31%에 그친 클린턴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반면 조그비 인터내셔널이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의원 31%, 오바마 의원 30%의 지지를 얻어 박빙 승부 속에 클린턴 의원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퍼니셜선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USA 투데이-갤럽 여론조사에서 존 매케인 후보가 34%의 지지율로 1위를 달렸고 미트 루니 후보가 30%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힐러리·롬니 “뉴햄프셔는 양보 못한다”

아이오와 코커스 승자의 돌풍이나 아니면 폐자들의 뉴햄프셔 역전이나.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대선 주자들은 오는 11.4 일 대선의 초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프리미어리(예비선거)를 이를 앞두고 일요일인 6일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는 승자대로 세몰이에 박차를 기했으며 폐자는 이를 차단하고 반전의 계기를 잡기 위해 역공세를 펼쳤다.

특히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민주당 대 최대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게 의외의 일격을 당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뉴햄프셔에서 만큼은 질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며 “변화

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오바마를 직접 겨냥한 공세를 펴부었다.

미 최초 흔인대통령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오바마 의원은 힐러리 의원의 이 같은 공세에 맞서 맨체스터 웰리스 극장 앞에 운집한 청중들을 향해 “나는 오랫동안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거의 조종까지 받아왔다”며 자신이 말해온 희망은 힐러리 의원이 지적한 ‘잘못된 희망’이 결코 아니라 고 맞았었다.

공화당의 미트 루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에게 첫 승리를 빼앗긴 것을 만회하기 위해 뉴햄프셔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루니 전 주지사는 뉴햄프셔에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온 매케인 의원을 직접 겨냥해 토비스트들에게 둘러싸여 있은 구시대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허커비 전 주지사는 복음주의자 보수층이 많은 아이오와 달리 진보성향이 강한 뉴햄프셔에서 1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조직력이나 여론조사 등으로 볼 때 어렵다고 보고 뉴햄프셔에서 최소 3위를 해 오는 19일 자신의 본거지 중 하나인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또 한번 승리, 아이오와 둘째 풍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일부 조항 헌법 위반

현재에 의견서 제출

현법재판소가 법무부와 대법원,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법무부는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7일 오후 제출했다.

따라서 법무부의 입장이 현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면 대법원은 현재 같은 법률을 판단 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20분에 현재에 접수한 의견서에서 이번 특검법의 위헌성

과 관련해 ▲헌법상 권리분립 원칙 위반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 명령제의 헌법상 양장주의 위배 ▲명확성의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외적 성격 위반 등 5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동행 명령제’ 관련 조항은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사항도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권리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법률이 특정 사건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개인을 상대로 한 처분적 속성이 짙어 입법권의 한계

/연합뉴스

를 벗어났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정성진 장관도 그동안 국회와 국무회의 등의 석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함께 현재 측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은 대법원은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시를 하지 않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또 다른 사법적 판단기관인 현재 측에 의견을 보면 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힐 차관보 오늘 서울 도착

이명박 당선인 예방 한미관계 증진 등 논의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8일 서울에 도착해 6자회담 현안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둔 한·미 관계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한다.

조희봉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8~10일 방한해 천연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 등을 포함해 관련 인사를 면담하고 북핵 문제 및 한미관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특히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 북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문제를 포함한 향후 한미관계 증진 방안에

/연합뉴스

를 벗어나는 청와대 청사에서 만나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방은 힐 차관보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대통령직 인수와 관계자는 전했다.

힐 차관보는 또 천영우 본부장과 만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고비를 맞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진전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핵 프로그램 신고 이행시한(12월31일)을 넘긴 만큼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촉구하는 방안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이오와 코커스 승자의 돌풍이나 아니면 폐자들의 뉴햄프셔 역전이나.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대선 주자들은

오는 11.4 일 대선의 초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프리미어리(예비선거)를 이를 앞두고 일요일인 6일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는 승자대로 세몰이에 박차를 기했으며 폐자는 이를 차단하고 반전의 계기를 잡기 위해 역공세를 펼쳤다.

특히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민주당 대 최대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게 의외의 일격을 당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뉴햄프셔에서 만큼은 질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며 “변화

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오바마를

직접 겨냥한 공세를 펴부었다.

미 최초 흔인대통령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오바마 의원은 힐러리 의원의 이 같은 공세에 맞서 맨체스터 웰리스 극장 앞에 운집한 청중들을 향해 “나는 오랫동안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거의 조종까지 받아왔다”며 자신이 말해온 희망은 힐러리 의원이 지적한 ‘잘못된 희망’이 결코 아니라 고 맞았었다.

공화당의 미트 루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에게 첫 승리를 빼앗긴 것을 만회하기 위해 뉴햄프셔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루니 전 주지사는 뉴햄프셔에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온 매케인 의원을

직접 겨냥해 토비스트들에게 둘러싸여 있은 구시대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허커비 전 주지사는 복음주의자 보수층이 많은 아이오와 달리 진보성향이 강한 뉴햄프셔에서 1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조직력이나 여론조사 등으로 볼 때 어렵다고 보고 뉴햄프셔에서 최소 3위를 해 오는 19일 자신의 본거지 중 하나인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또 한번 승리, 아이오와 둘째 풍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합격률 전국 1위 = 오전반 야간반 공인증개사/주택관리사

개강 1월 7일 ■ 현대적 학습시설 ■ 과학적 평가 시스템

현재상담 접수 중

전남고시학원 236-2467
전남 여고 건너편

1월 15일(토)

▲광주수영장(주) 청정 헬스 1층 11:00~13:00
■광주수영장(주) 청정 헬스 1층 14:00~16:00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

▶ 1월 15일(토)